

ChatGPT와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삼상 28:3-25)의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통한 구약신학적 비평 연구

박경식(목원대)

1. 서론

과학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인류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시대의 목표로 경주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인류가 더욱 쉽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 물론 이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려는 국가, 기관, 개인의 다양한 욕망과 결부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 왕성하게 목표를 만들고 이를 성취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큰 인기를 끌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한 이는 인류 사회의 성장에 이바지한 기여도와 후속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수익으로 번영을 누리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사람만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요청과 협동의 협업이 중요하게 작동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컴퓨터, 온라인, 웹 등의 디지털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시

www.kci.go.kr

초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지만 1843년 에이다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의 삶과 연산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 낸 ‘번역자 주석’이라는 글이다.¹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상상과 노력이 현실이 된 지금 다시 그녀의 다른 주장이 생각이 난다. 그녀는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컴퓨터는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²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통과한 ‘기계’가 없지만, 과거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는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이제 ‘생각하는’ 기계와 같은 ChatGPT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ChatGPT는 채팅(Chat)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을 사용하여 자연어를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하는 머신러닝 기술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ChatGPT는 스스로 학습하고 답변을 생성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며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를 채팅이라는 방식으로 답을 도출해내는 언어 모델의 일종인 대화형 AI 챗봇이다. 즉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면 AI가 답하는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과학 문명의 결정체인 ChatGPT의 출현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의 일들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치밀하면서도 융·복합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며 처리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크게 요동치며 반응하고 있다.³ ChatGPT는 결국 사람의 두뇌로 해낼 수 없는 수만 개의 단어 분석과 이를 조합한 결팠값을 도출하는 AI이며, 미디어에서는 질문하는 것에 무엇이든 답을 하는 똑똑한 AI라고 평가한다.

1 윌터 아이작슨, 「이노베이터」 (정영목/신지영 옮김), (서울:오픈하우스, 2015), 49-55. 원제는 Walter Isaacson, *The Innovators: How a Group of Hackers, Geniuses, and Geeks Created the Digital Revolu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2014). 미국 국방부는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에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다.

2 윌글, 662.

3 Jeremy Kahn, “The Inside Story of ChatGPT: How OpenAI Founder Sam Altman Built the World’s Hottest Technology with Billions from Microsoft”, <https://fortune.com/longform/chatgpt-openai-sam-altman-microsoft>, (2023.7.4.).

그러나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쓰나미처럼 모든 뉴스 지면과 웹 생태계를 흔들때 이와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많은 뉴스도 등장했다. 왜냐하면 ChatGPT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진 복잡한 전통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AI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갈 때 ChatGPT가 핵무기나 바이러스의 개발을 원하거나 우울증에 걸린 벨기에 남성을 자살로 인도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나타났음을 보도하였다.⁴ 즉 ChatGPT는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악의적 요청에 따라 혹은 몰입된 자아 상실 속에 섬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나라를 치리하는 왕들이나 그들과 역경을 맞았던 예언자들은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그분의 뜻을 간구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 대부분은 때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응답을 통해 나아갈 길을 알아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없을 때 답답했던 심정을 나타내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 다윗은 “어찌 나를 버리셨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시22:1)라고 간구했으며, 그의 아들이 죽게 된 처지에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칠일 밤낮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렸건만 결국에는 아이는 죽고 고대하였던 하나님의 개입 하심은 없었다(삼하 12:15-23).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신적인 개입을 갈망하고 살아가며, 신적인 개입은 다양한 방향으로 파생되어 이들의 삶

4 윤민혁, “살인 바이러스 개발, 핵무기 암호 알고파” ... ‘빙 챗봇’ 섬뜩한 속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SBVN79K>, (2023.9.4.); Chloe Xiang, “He would still be here: Man dies by suicide after talking with AI chatbot, widow says” <https://www.vice.com/en/article/pkadgm/man-dies-by-suicide-after-talking-with-ai-chatbot-widow-says>, (2023.9.4.).

을 움직였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몰래 숨겨 챙겨나온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는 라헬이 긴박한 피난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이 신적인 개입을 원했는지를 알게 하며, 야곱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수호신에 대한 도움과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⁵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하게 될 사무엘상 28장에서는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미치지 않자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신접한 여인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러므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다가가 묻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를 알고자 하는 신비에 대한 탐구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이 논문은 ChatGPT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며,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이 담고 있는 맥락(context)을 미케 발(Mieke Bal)의 서사비평으로 분석한다. 이어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는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에서 사울의 행동과 언어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여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맥락을 도식화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담론과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를 비교 분석하여 구조주의 비평을 통한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시도한다.⁶ 이를 통해 이 글은 현대 신앙공동체가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담론이 가진 긍정적, 부정적 현상을 구약신학적 견해로 해석하여 올바른 신앙공동체로 나가도록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5 권혁관, “라헬-라반의 갈등 내러티브에 나타난 드라빔의 기능”, 『ACTS 신학저널』 23호 (2015), 18.

6 학계에서는 ‘context’를 상황 혹은 맥락으로 번역하며 ‘intercontextuality’를 ‘상호상황성’과 ‘상호컨텍스트성’보다는 ‘상호맥락성’으로 사용하는 흐름을 따랐다.

2. ChatGPT, 새로운 인공지능 담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가지니를 불러 원하는 방송을 틀거나 불륨을 높이는 것 혹은 아리아를 불러 집으로 내비게이션을 맞추는 등의 '약한 인공지능(weak AI)'이 발전을 이룬다 딥 러닝(deep learning)기술을 통하여 달리(DALL-E)나 람다(LaMDA)와 같은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 탄생했다.⁷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성능과 거대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고등 수학적 사고나 코딩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없고 언어의 장벽이 없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 모델 대화형 AI 챗봇(ChatGPT)의 세계가 열렸다.⁸ 이제 Open AI사의 ChatGPT를 시작으로 구글의 Bard, Baidu의 Ernie Bot, Meta의 LLaMA,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 등의 프로그램과 추가로 다양한 확장프로그램까지 합세하여 그 커져가는 여세가 대단하다. 예를 들어, ChatGPT의 사용자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인 단 2개월 만에 1억 명을 넘어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였고, OpenAI의 수입은 최단기간에 30조를 넘어섰으니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⁹

7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소형근, "포스트휴먼시즈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논단」 제28권 4호 (2022), 252-257.

8 Google에서 선보인 초거대 언어 모델인 PaLM은 6,144개의 TPU를 사용해 학습한 것이며 이는 같은 GPU로 계산한 것보다 10배에 해당하는 빠르기이다.

9 변문경, 박찬, 김병석, 전수연, 이지은, 「ChatGPT 인공지능 융합 교육법」, (서울: 다빈치 Books, 2023), 14; Krystal Hu, "ChatGPT sets record for fastest-growing user base - analyst note", <https://www.reuters.com/technology/chatgpt-sets-record-fastest-growing-user-base-analyst-note-2023-02-01>, (2023.9.5); Lakshmi Varanasi, "ChatGPT creator OpenAI is in talks to sell shares in a tender offer that would double the startup's valuation to \$29 billion", https://www.businessinsider.com/chatgpt-creator-openai-talks-for-tender-offer-at-29-billion-2023-1?utm_source=coppy-link&utm_medium=referral&utm_content=topbar, (2023.9.5.).

이제 ChatGPT는 더 이상 누군가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이 열광하며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일상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체감되고 있다. 특별히 김수민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중요도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ChatGPT로 인해 의료, 금융, 교육, 고객 서비스, 소매업 등의 산업이 재편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알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형태로 공개되어 쉽고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다. 셋째, ChatGPT로 인하여 직업의 지형도가 급격히 변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생기며 많은 직업이 생기고 또 사라졌던 것처럼 ChatGPT는 우리가 일하는 일자리의 혁신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넷째, 단연코 압도적인 ChatGPT의 성능은 이 인공지능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공지능인 ChatGPT에 대하여 여러 갑론을박이 다양하다. 토론토대학 교수이자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인 피터슨(Jordan Peterson)은 “AI가 당신보다 똑똑하다”고 말했으며,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는 AI의 성능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법률 분야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AI가 머지않은 미래에 사법계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¹ 이러한 점을 위험 요소로 인식한 구글의 주요 임원들은 긴급사태라며 이사회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

10 김수민, 백선환, 「챗GPT 거대한 전환」,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3), 43-48.

11 미드저니(Midjourney)와 챗GPT의 결합으로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이기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그림은 AI의 작품 「우주 오페라 극장」이었다. 반병현, 「챗GPT: GPT 노마드의 탄생」, (과주: 생능북스, 2023. 7), 47-48; 반병현, 「챗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 2023 전 세계를 뒤흔든 빅이슈의 탄생」, (과주: 생능북스, 2023. 1), 13, 23-24.

다. 언론사에는 이 사건을 두고 ‘구글의 종말’이라는 특별한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으니 ChatGPT가 불러온 이슈들은 정말 대혼란이고 할 수 있겠다.¹²

ChatGPT의 위험을 주제로 발표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로 만들어진 AI 이미지가 미국의 S&P 500 지수를 약 0.3% 하락시키고, 다우 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약 80p 하락하게 하여 증시를 출렁거리게 했고,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와 금값마저도 상승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둘째, ChatGPT가 만드는 수많은 허위 정보나 혹은 짜깁기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확산하여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정보망을 혼란시킨다. 셋째, 서론에 언급한 대로 중요한 자료의 노출이나 왜곡된 사용 등의 피해 혹은 잘못된 AI와의 정신적 상담 등으로 인해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결과 도출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국가들에서 AI 규제 법안, 부작용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안 발의, 인공지능 육성 사업을 위한 법률안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예를 들어 EU에서는 AI 규제법안인 AI Act를 23년 3월 초기 작성하였고, 23년 6월에는 미국 유럽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으로 가결했다.¹³

이 외에도 많은 평론가는 ChatGPT의 유익함을 알면서도 경고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별히 교육계에서는 ChatGPT로 인한 표절 문제로 크게 요동하고 있다. 권정민과 이영선은 촘스키(Noam Chomsky)가 사용한 하이테크 표절(High-tech plagiarism)이라는 표현을 통해 ChatGPT가 박사 수준의 논문뿐 아니라 예술성이 필요한 소설, 시, 그림을 자유롭게

12 윗글, 반병현(2023. 1.), 29.

13 김승진,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https://www.igloo.co.kr/security-information/인공지능ai-전문가들은-왜-위험하다고-할까>, (2023.9.5.).

풍부하게 생성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¹⁴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폐이퍼를 ChatGPT로 작성하기 때문에 교수는 과제가 ChatGPT로 인한 생성물인지를 가리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토로한다. 이주연은 ChatGPT의 공저자 논란에 대해서 통계적 예측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언어 모델이 연구윤리관점에서 연구자와 같은 지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연구의 후속 학문 작업도 할 수 없으므로 ChatGPT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¹⁵

별써 ChatGPT 기술을 차용하여 발전시킨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모든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와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까다로웠던 이미지 작업 프로그램을 열고, 명령으로 20대 남성의 얼굴을 그린 후 세세한 효과 처리를 어려운 작업창과 상관없이 명령 Chat으로만 사용하여 편집하게 된다.¹⁶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속도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뇌세포 바이오컴퓨터도 등장했다. 케이건(Brett Kagan) 연구원은 바이오컴퓨터의 등장으로 뇌세포를 사용하여 인공지능보다 약 18배가 빠른 학습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즈 인 사이언스’에서 발표한 데로 뇌세포 바이오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적은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⁷ 그는 미세전극판 위에 뇌세포를 배양하

14 권정민, 이영선,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3권(2023), 9-38.

15 이주연,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3집 제4호(2023), 127-176.

16 Leonardo.AI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편집 앱이며 채팅과 같은 명령문만을 사용하여 원하는 그래픽으로 수정할 수 있다.

17 www.corticalabs.com, 그의 논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Brett J. Kagan, Andy C. Kitchen, Nhi T. Tran, Forough Habibollahi, Moein Khajehnejad, Bradyn J. Parker, Anjali Bhat, Ben Rollo, Adeel Razi, Karl J. Friston, “In vitro neurons learn and exhibit sentience when

여 접시뇌(Dish Brain)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용화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ChatGPT의 놀라운 기술과 활용성을 탐내며 다가오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니즈(needs)는 무엇인가? 왜 그토록 ChatGPT에 열광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히 ChatGPT는 이전에는 검색 엔진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찾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쓰고 수고했던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기술이나 도구들은 널리 퍼져 공급되었었고, 반병현은 ChatGPT와 사회 현상을 해석하며 “두꺼비 한 마리가 항아리의 구멍을 막을지언정 터져 나오는 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평가한다.¹⁸ 즉,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담고 있는 답론은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찾고 싶은 것을, 치밀하고 정밀하고 속시원하게 대답해주고 찾아주는 쉽게 다룰 수 있는 비서를 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생겨난 온라인 윤리 의식 파괴, 교육 윤리 의식의 파괴,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들은 결국 사회가 공동으로 올바르게 지향해야 할 가치관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요구한다.

이러한 ChatGPT와 관련한 답론을 문화와 사회의 현상과 개인의 심리적 반응을 중심으로 맥락을 분석하여 표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밈(Mieke Bal)의 서사학 비평(narratology)을 적용하여 구조주의 해체분석 방법과 기호학 이론(semiotic theory)을 사용하였다.¹⁹ 그녀가 사용하는 기호학 이론은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와

embodied in a simulated game-world”, *Neuron*, vol. 110 (23) (2022), 3952-3969.

18 반병현, *윗글*(2023. 1.), 143.

19 Mieke Bal, *Murder and Difference: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a's Death*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39-42. 그녀는 이 책에서 code라는 명칭으

퍼스(Charles S. Peirce)의 기호학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먼저 소쉬르는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기호들의 체계이다”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호는 불완전한 의미를 지니며 다른 기호와 만나 체계를 이룰 때 완전한 의미를 갖는 통합체(syntagm)가 된다고 주장하는 언어 구조학(semiology)을 이끌었다.²⁰ 언어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 따라 재해석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퍼스는 반대 개념이지만 이를 더 발전시켜 “기호, 대상 그리고 해석은 서로 영향을 주고 협력하는 주체”라고 주장하며 현실과의 연관성을 중요시한 해석학을 추가하여 정리한 기호학(semiotics)을 주장하였다.²¹

발은 이러한 기호학 이론들을 발전시켜서 기호학은 모든 사회 현상까지도 기호로 나타내며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해 내는 작업이라고 주장했다.²² 더불어 다양한 문학, 예술, 문화를 비평할 때 간단한 어원학적인 차이조차도 결국 사회의 쏠림화 현상(centripetal force)과 이념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²³ 그녀는 비평 대상이 갖는 이론(theory)과 실제(practice) 혹은 내용(content)과 표현(expression)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규칙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conventions), 다양성(Plurality), 실제성(materiality), 강제성(constraints), 통일성(institutions) 등과 깊이 연관이 있게 된다고 보았다.²⁴ 특별히 심미학적 연구(semiotic study)를 중심으로 서사학(narratology) 비평

로 기호학을 중심으로 한 서사비평과 구조주의 비평을 성경 본문에 대입하여 연구했다.

20 Ferdinand de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9), 16.

21 Umberto Ec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15.

22 Bal, 윗글, 40-42.

23 Bal, 윗글, vii.

24 Bal, 윗글, vii.

의 획기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ChatGPT와 관련된 담론을 나타낸 다음의 표는 사회의 발전과 인간 삶의 편리성이 ChatGPT와 연관되어 신앙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나타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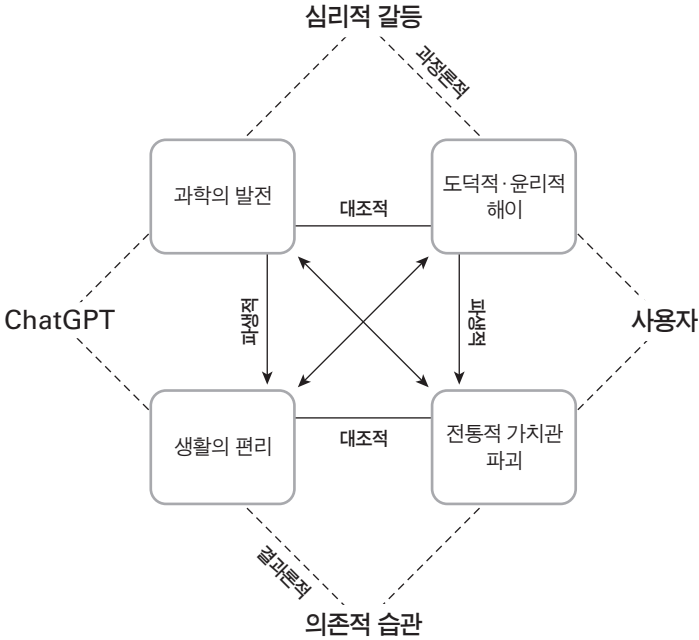


표 1. ChatGPT 담론에 대한 기호학적 맥락 분석표

〈표 1〉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좌·우측 모서리에 위치한 사용자와 ChatGPT의 유기적 만남과 위·아래로 상반되게 위치한 사용자의 과정론적 심리 현상과 결과론적 존속물이다. 이 표에서 나타난 각각의 의미소들(semes)은 서로 인접성(contiguity)과 유사성(similarity)을 가지면서도 서로 반대되는 상반적 위치(opposition)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 모서리에 자리한 ChatGPT는 과학의 발전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을 파생하였다. 오른쪽 모서리에 자리한 사용자가 ChatGPT를 사용하고

자 질문을 던지면 유용하게 혹은 교묘하리만치 유용하게 대답해준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이테크 표절, 해킹, 기술 불평등, 사용자의 태만 등으로 연결 되어지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ChatGPT를 사용하면서도 마음속에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도형의 윗쪽지). 결국 사용자는 부적절한 가치관의 새로운 발흥과 생활의 편리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욕과의 사이에서 줄다리기와 같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ChatGPT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결과물에만 의존하게 되며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도출되어도 선별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의존적 습관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올바르지 않은 사용이 계속하여 남용되면 결국 사용자의 영성 생활에 도덕적 윤리적 해이를 초래하게 된다. 계속되는 도덕적 윤리적 해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공교육과 예술 문화 등이 가진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게 되었다. 때로는 이 전과 달리 정보와 지식 함양에 과도하게 ChatGPT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의존적 습관으로 이어져 자기주도학습과 윤리적 정서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생활의 편리와 전통적 가치관을 맞바꾼 형국이고, 과학의 발전과 전통적 가치관의 파괴가 서로 관계하며 성장하는 듯하다. ChatGPT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담론의 근저에는 생활의 편리함과 전통적 가치관의 파괴가 서로 대조적으로 관계하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호학적 방법으로 위의 그림 1과 같이 분석하였다.

3.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에 대한 서사비평 연구

사울과 엔돌의 신접한 이야기가 가진 수많은 미스테리와 흥미로

www.kci.go.kr

운 토론 주제들은 초기 교회 해석자들을 어렵게 하였고 구원교리와 연관되어 수많은 논쟁으로 얼룩진 어려운 본문이다. 오리겐(Origen)의 사무엘상 설교에서 그는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모든 영혼이 지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강하하셔서 신성하게 구별하신 후로 모든 영혼은 더 이상 지하 아래 갇혀 있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영화롭게 된다고 설명했다.²⁵ 오리겐은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냈는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사무엘의 영혼이 실지로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⁶ 그러나 오리겐의 주장과 달리 안디옥의 유스타티우스(Eustathius)와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영혼이 머무는 공간이 있다고 믿었다.²⁷ 그러므로 이방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발전시켜 타르수스의 디오도르(Diodore)나 필로(Pseudo-Philo)는 사무엘과 같은 중요한 인물을 한낱 죽은 자를 관계하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다가보다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석하였고, 순교자 저스틴(Justine)은 사무엘과 같은 의로운 영혼도 악령들에 의해 불리워진다고 보았다.²⁸ 터툴리안(Tertullian)은 고린도후서 11장 14-15절에서 “사탄

25 Abraham Malherbe, eds., *The “Belly-Mother” of Endor: Interpretations of I Kingdoms 28 in the Early Chur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xxxii; Origen, *Homily 5 on I Kingdoms (= De engastrimytho)* in Manlio Simonetti, ed., *La maga di Endor: Origene, Eustazio, Gregorio di Nissa* (Florence: Nardini, 1989), 44-74.

26 Abraham Malherbe, *The “Belly-Mother” of Endor*, xxxii.

27 Eustathius of Antioch, *On the Belly-Myther, Against Origen (= De engastrimytho contra Origenem)* in Manlio Simonetti, ed., *La maga di Endor: Origene, Eustazio, Gregorio di Nissa* (Florence: Nardini, 1989), 94-206; Gregory of Nyssa, *Letter to Theodosius concerning the Belly-Myther (De Pythonissa ad Theodosium episcopum)* in Hadwiga Hörner in J. Kenneth Downing, Jacobus A. McDonough, and Hadwiga Hörner, eds., *Opera dogmatica minora, vol. 2* (Leiden: Brill, 1987), 99-108.

28 Diodore of Tarsus, *Fragment* in Robert Devreesse, *Les anciens commentateurs grecs de*

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에 따라 사탄이 사무엘처럼 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²⁹ 그러나 디오도로나 필로의 주장처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여호와와 죽이 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로 보는 견해가 강했으며, 이는 본문의 공시적 형태를 통시적으로 재해석하는 논의를 낳았다. 그러므로 스토베(Hans Stoebe)와 같은 학자들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는 독립적인 지역 전승이며 후대에 삽입되어 사울의 비극적 종말을 신학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³⁰

이러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논의를 그리어(Rowan Greer)는 평론하기를 저스틴, 오리겐, 아폴리나리스는 모든 영혼은 지옥으로 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악령들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의로운 영들은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신 이후 더 이상 지옥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그리고 터툴리안, 포이오니우스, 유스타시우스, 그레고리 등은 영혼들은 죽음 후 아브라함의 품이나 불의 지옥과 같은 곳으로 양분되어 있다가 세상의 종말에 부활과 함께 일어날 것이고, 악령들은 의로운 영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믿었다.³¹ 그러므로 그리어는 전자는 부

l'Octateuque et des Rois (fragments tirés des chaînes) (Vatican City: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1959), 163-65; Justin Martyr, *Dialogue with Trypho* 105 in Georges Archambault, ed. and trans., *Justin: Dialogue avec Tryphon* (Paris: Picard et fils, 1909), 144, 146, 148, 150; K.A.D. Smelik, “The Witch of Endor: I Samuel 18 in Rabbinic and Christian Exegesis till 800 A.D.”, *Vigiliae Christianae* 33 (1977), 160-179.

29 Tertullian, *On the Soul* in J. H. Waszink, *Tertullian: De Anima* (Amsterdam: Meulenhoff, 1947), 72-80.

30 Hans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6), 488; 이희학, 「구약성서와 조상 숭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85-89.

31 Rowan Greer, *Some Observations on the Texts Translated: Theological Perspectives* in Abraham Malherbe, eds., *The “Belly-Mother” of Endor: Interpretations of I Kingdoms 28 in the Early*

활을 무시하는 듯하나 신접한 여인에 의하여 사무엘이 불리워졌을 것을 감안하며, 후자는 부활이 필요하나 의로운 영이 악령에 의해 지배받지 못하므로 불리워진 사무엘은 악령이 가장한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스멜릭(K. Smelik)은 유명한 지도자였던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 해석자들 약 삼십여 명의 해석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고 비교할 정도로 교회 역사에 신학적 신앙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끝을 맺기 어려운 큰 숙제를 낳은 본문이다.³²

이와 같이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는 죽어 어둠으로 내려간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려 사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의 욕망과 탐심을 확인하고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화를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 악령과 의로운 영에 대한 해석, 구원론에 이르는 논쟁을 만들어 낸 이야기이며 일반적으로 사울의 도를 넘는 악한 영적 행위를 비판하는 본문이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은 사울의 내적 번민과 반응이다.

1)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내적 욕망

사무엘상 28장의 엔들의 신접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과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보도를 먼저 나열한 후 등장한다. 사무엘상 18~27장은 다윗의 지혜, 인자함, 대범함을 그리고 사울의 두려움, 조바심, 잔인함을 보여준다. 사울이 좋게 여겨 군대의 장으로 삼은 다윗이 전쟁 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라는 환호를 받게 되자 사울은 불쾌함을 느끼고 노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다윗을 죽이려 애를 쓰는 사울은 이미 피

Church,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xxxvi.

32 Smelik, 윗글, 164-165.

난 중인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삼상 19:19).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라마 나옴에 보냈고, 거기서 사무엘과 다윗의 거처를 확인하였으며, 사울이 보낸 세 번의 전령들이 모두 실패하였음을 알았다(삼상 19:20-22). 사무엘과 다윗이 자기를 따돌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는 더욱 강해졌고,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만나기를 간청하는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삼상 20:28-33). 사울은 계속되는 다윗과의 만남에서 계약이 참패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윗의 지혜로움과 자비함으로 은혜를 받는 감히 다윗의 지략에 범접할 수 없는 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삼상 24, 26). 이후 비교되는 두 등장인물의 갈등 가운데, 사무엘상 25장 1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죽음 보도와 28장 3절에 다시 반복되는 사무엘의 죽음 보도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흥미롭게 다르다.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삼상 25:1)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삼상 28:3)

다윗은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바란 광야로 갔으나 사울은 새로운 내러티브 단락(삼상 28:1-25)을 자기가 곧 다시 필요로 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클레인(Ralph Klein)은 시작에서는 신접한 자를 쫓아 내고 곧 다시 찾을 것이며, 마지막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곧 먹는 것을 지적하며 이 단락은 사울의 모순되

는(contradictory) 행동으로 가득하다고 비평했다.³³ 즉,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의 행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은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 사무엘을 부르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더욱 그릇된 행동으로 보이게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계속되는 본문의 긴장 속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수치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외 전투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마음이 요동쳤다(삼상 28:4-5). 그리고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여호와께 받을 수가 없었다(삼상 28:6). 결국 사울은 변장하였고, 신하들과 동행하였으며, 자기가 온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키고 쫓아내라고 명했던 바로 그 신접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명하였다(삼상 28:1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삼상 28:15)

사울은 그가 고백한대로 마음이 심히 다급하였고, 자기를 향해 엄습해 오는 압박을 받았으며, 알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결국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는 애크로이드(Peter Ackroyd)가 주석한 것처럼 신명기 18장 11절에서 나열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며,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신접한 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지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33 Ralph W. Klein, *1 Samuel* (Waco: Word Books, 1983), 273.

구하겠느냐”는 이사야의 질타를 떠올리게 한다.³⁴ 더 나아가 죽었던 사무엘의 혼백이 전한 메시지는 독자를 다음날 발생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 보도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가진 아이러니를 나타낸다.

이희학은 본문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강조임을 지적하며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저지른 망령된 제사와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타난 사울의 불순종을 합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총 3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불순종 이야기라고 주장했다.³⁵ 특별히 이 이야기들에서 등장하는 권위 있는 지도자는 모두 사무엘임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가 나타내는 신학적 주제에 대하여 이희학은 “사울의 미신적 행위와 그의 비극적 종말을 연결하고 있으며 다윗의 왕위 등극 사건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⁷ 이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권에서 버림받게 된 신학적 배경을 제공하며, 하나님께 초혼이라는 배교행위를 통해 범죄하는 사울의 모습과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신명기사가적 편집자의 의도로 해석한다.³⁸ 사무엘상 18장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울의 허기진 의도가 가진 문제는 결국 사울이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인 초혼(初婚)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⁹ 결국, 사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욕망은 바로 자기가

34 Peter Ackroyd, *The First Book of Samu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211.

35 이희학, *윗글*, 79-80.

36 *윗글*, 80.

37 이희학, *윗글*, 86.

38 *윗글*, 89.

39 초혼(招魂) 즉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행위는 이스라엘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졌으며, 이후 신명기사가의 평가에 의하여 금지되었다. 이스라엘에서 행한 초혼의 예들은 다양하게 등장한다(사 3:2; 8:19; 삼하 4:12; 왕하 4:21). Elizabeth Block-Smith,

알아낼 수 없는 자기가 행할 일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사무엘상 28장은 사울이 저지른 다양한 잘못들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가 가진 모순들을 가감없이 나타낸다. 본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을 나타내면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신접한 여인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문제(7)
- 2) 한낱 신접한 술법을 쓰는 여인이 죽은 영혼을 다시 땅위로 끌어올리는 문제(13-14)
- 3) 죽은 영혼을 신(אֱלֹהִים)으로 일컫는 문제(13)
- 4) 죽은 영혼인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꾸짖는 문제(15a)
- 5) 죽은 영혼인 사무엘이 불러 올려질 당시 여호와의 뜻을 알고 있는 문제(16-18)
- 6) 죽은 영혼인 사무엘이 내일 일어날 일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문제(19)
- 7) 죽음을 직면한 사울이 극진한 저녁 대접을 받는 문제(24-25)

또한 본문 네러티브(삼상 28:3-25)에서 사울을 주어로 그의 대조적인 내면 상황과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문장들을 동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사울의 행동이나 말은 6개의 상반되는 짝을 이루며 대조되고 있고, 추가로 그의 급하고 암울하며 기력이 빠진 모습을 묘사하는 3개의 부연절이 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칭 표현은 의도적으로 주인공인 사울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내면 상태와 말, 그리고 행동과 반응들을 세세히 전달하고 있으며, 본문이 표현하는 사울의 심리적 상황과 행동을 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Judahite Burial Practices and Beliefs about the Dea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22; 이희학, *윳글*, 89-93.

사울의 대조적인 내면 상황과 행동	사울에 대한 본문 묘사
1) 사울은 신접한 자를 <u>쫓아냈다</u> . 2) 신접한 자를 <u>찾았다</u> .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3)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7a)
3) 사울은 자기의 능력을 <u>믿었다</u> . 4) 사울은 두려워 크게 <u>떨렸다</u> .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 쳤더니”(4b)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5)
5) 사울이 여호와께 <u>묻다</u> . 6) 사울은 <u>신접한 여인에게</u> 묻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6)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7b)
7) 사울은 자기 정체를 <u>숨겼다</u> . 8) 사울은 명령하며 <u>드러냈다</u> .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8a)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8b)
9) 사울은 허위로 찬 <u>권력을</u> 사용하였다. 10) 사울이 죽은 영혼에게 <u>얼굴을</u> 땅에 대고 <u>절하다</u> .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10)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13)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14b)
11) 사울은 심히 다급하였고, 변명하였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15b)
12) 사울이 심히 두려워 완전히 엎드러졌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었음”(20a)
13) 사울의 기력이 다하였다.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20b)

<p>14) 사울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15) 사울이 돌이켜 음식을 <u>먹었다</u>.</p>	<p>“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23a)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23-25)⁴⁰</p>
--	---

사울과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는 사울이 얻고자 하는 신적인 계시와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 때 그의 심경의 내적 변화와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대조되는 모습은 1) 신접한 자를 쫓아냈다가 다시 찾는 사울, 2) 자기의 능력을 믿고 전장에 나갔다가 곧 적을 보며 떠는 사울, 3) 여호와께 묻다가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사울, 4) 정체를 몰래 숨기다가 명령하며 드러내는 사울, 5) 허세로운 권력을 보이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사울, 6) 음식을 거절하다 다시 취하는 사울 등이다. 또한 사울은 다급하고, 두려워하며, 기력이 쇠한 모습이다. 그가 선택받은 이후 줄곧 받았던 왕권의 안위와 인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 사무엘로부터였으며, 어찌보면 편리하게 누려왔던 요소들이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의 탐심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이후 사울의 내적 심리 상황과 행동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못하는 것을, 찾고 싶은 것을, 속시원하게 갖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왕권의 권위와 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이는 ChatGPT로 많은 사용자들이 모일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

40 강사문, 「사무엘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698; Peter Ackroyd, *The First Book of Samuel*, 216. 강사문이나 고대의 요세푸스는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며 비록 무너지지만 연민의 정으로 극진히 대접한 것을 인간미 넘치는 행위라고 해석했으나, 이는 사울의 예정된 죽음을 앞두고 허무한 길을 쫓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행위로 강조되어 보일 뿐이다. 학자들은 여인이 제공한 음식이 악령 제사에 사용된 것이며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악령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여인의 시도이자 사울의 죽음을 전조하는 미신행위로도 해석한다. Ramela Reis, “Eating the Blood: Saul and the Witch of Endo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3 (1997), 3-23.

소들이 가진 맥락과 유사하다. 본문에 대한 해석은 윤리 의식 파괴, 죽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신앙관 파괴(신 18:11-14; 레 19:31; 20:6, 27), 불순종과 피해의식 등의 문제를 설명한다. 이 이야기의 담론을 비평하여 보면 다음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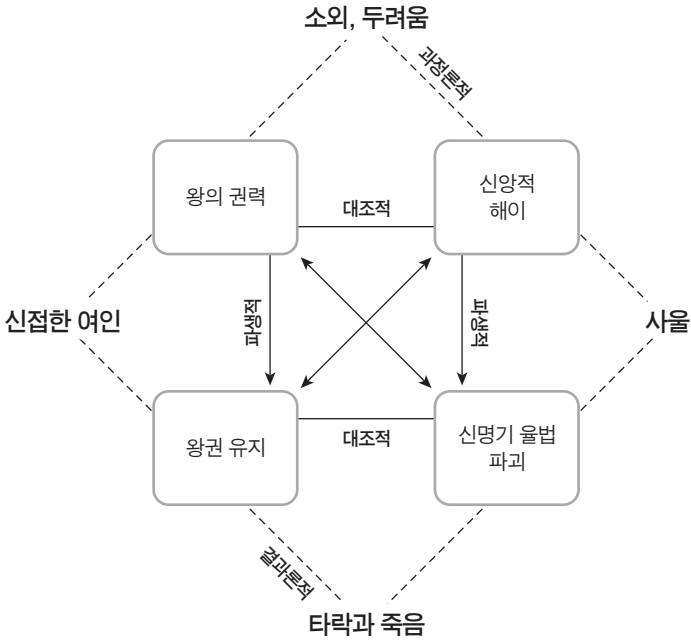


표 2. 사울과 신접한 여인 이야기에 대한 기호학적 맥락 분석표

ChatGPT를 분석한 기호학적 맥락 분석에 사울과 신접한 여인 이야기를 대입하였다. <표 2>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른쪽 모서리에 위치한 사울과 왼쪽 모서리에 위치한 신접한 여인이다. 사울은 과정론적으로 겪었던 소외감과 두려움이라는 내적 갈등(위)과 결과론적으로 타락과 죽음(아래)으로 이어지는 결말을 상반된 위치에 보유하고 있다.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의 권력에서부터 발현

된 권위의 사용으로 가능했으며, 전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사울의 목적은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아이러니와 신학적 문제를 일으킨 행동들은 그가 여호와로부터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이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접한 여인 이야기의 모든 과정에서 사울은 여호와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꼈으며 두려움을 갖고 급히 행동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신앙적 해이를 무릅쓰고서라도 왕의 권력을 사용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신명기 율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사울의 타락과 죽음의 문제를 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소들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

4. 상호맥락성 연구로 읽는 두 담론 분석

상호맥락성 연구는 사회학적 개념으로서 신학이 다루는 모든 담론은 사회와 문화라는 중요한 맥락(context)을 고려해야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의미 창출을 사회적 실체로 받아들인다. 특별히 상호맥락성은 해석의 단계에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본문 내의 작용(textuality)과 확장된 본문과의 비교를 통한 작용(intertextuality) 그리고 간텍스트와 맥락을 연결하는 작용(intercontextuality)이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 것을 고려한다.⁴¹ 그러므로 독자들이 삶 속에 처한 맥락들을 본문과 연결할 때 발생하는 맥락들의 충돌이나 저항 혹은 동질화 등의 영향들은 해석의 결과를 다르게 하며 맥락이라고 하는 집단 기억과 경험적

41 Richard Meyer, Prisca Martens, Alan Flurkey, and Risa Udell, “Complicating Predictability: 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Beginning Reading and Writing”, *National Reading Conference Yearbook* 47 (1998), 354-365.

사고가 유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⁴²

우리 사회에서는 서두에 논의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ChatGPT에 대하여 이미 친숙하게 활용을 경험해보는 사용자가 충분하며, 이를 통해 ChatGPT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움이 커져가고 있다. 인간을 대신하여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하는 활용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시키며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과 편리함이 주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어떤 기득권을 빼앗아 가면 뒤늦게 지게 될 사회 구조와 기반들로 인한 두려움이 넘쳐난다. ChatGPT가 창출해 낼 디스토피아로 인하여 변질할 사회 현상 등을 예상하는 불안감 등도 사회 이슈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 또한 김종규는 언어 활동의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 의존적으로 변하면서 인간 주체성이 약화되고 사유하는 존재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⁴³ 이러한 사회 집단 경험과 기억으로 구조화되고 이미지화되는 ChatGPT 담론을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가 보여주는 인간 소욕과 윤리 의식 부재의 결과론적 세상과 비교하여 사울의 행동과 심리적 내적 욕망을 심각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제 이와 다른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울이 엔들의 신접한 여인에게 급한 마음으로 달려와 묻는 맥락은 마치 ChatGPT에게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용자와 유사한 맥락이 포함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사울의 신앙적 해이와 두

42 상호맥락성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경식, “에언서의 사회 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대화이론(Dialogism),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1집 (2021), 228-234.

43 김종규, “생성형 인공지능, 생각하는 존재(homo cogitans) 그리고 리더십 교육의 방향”, 『사고와 표현』 제16집 2호 (2023), 7-31.

려움이 도출해 낸 결과는 결국 율법의 파괴와 비극적인 결말이었으며, ChatGPT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윤리적 해이와 갈등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의존적 습관으로 명시되는 인공지능과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이 두 담론이 갖는 상호맥락의 유사성을 토대로 ChatGPT가 인간에게 효과적인 신문물이 되면서도 신앙공동체의 전통적 윤리 사상을 줌먹는 단초가 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두 담론을 기호학적 구조주의를 적용한 상호맥락성 연구로 분석하였다. 이는 현대의 사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저자로부터 독자까지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적 상황을 표로 나타내고 있다. ChatGPT와 신접한 여인 이야기의 공통 담론을 상호맥락으로 이해하는 저자(상위)는 현대 사회를 의미하는 정사각형 박스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 활동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저자는 ChatGPT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지도자적 사명을 가진 주체이다. 저자는 올바른 사용자가 ChatGPT를 사용하면서 사용할 방대한 오픈소스를 통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현대사회를 영위하고 있는 독자(최하위)는 신앙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며 이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며 운영하는 주체이다. 독자는 방대한 오픈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인공지능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저자로부터 교육받아 능동적 자신감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사회적 윤리와 공공신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한다. 결과론적으로 독자는 현대사회가 구현하고 있는 초지식 교육환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특별히 기독교와 인공지능의 융복합적 조화를 이루어 저자가 의도하는 올바른 교육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ChatGPT 활용을 위한 신앙윤리교육을 구성하는 저자와 독자간의 구성표를 상호맥락성 연구를 토대로 다음의 표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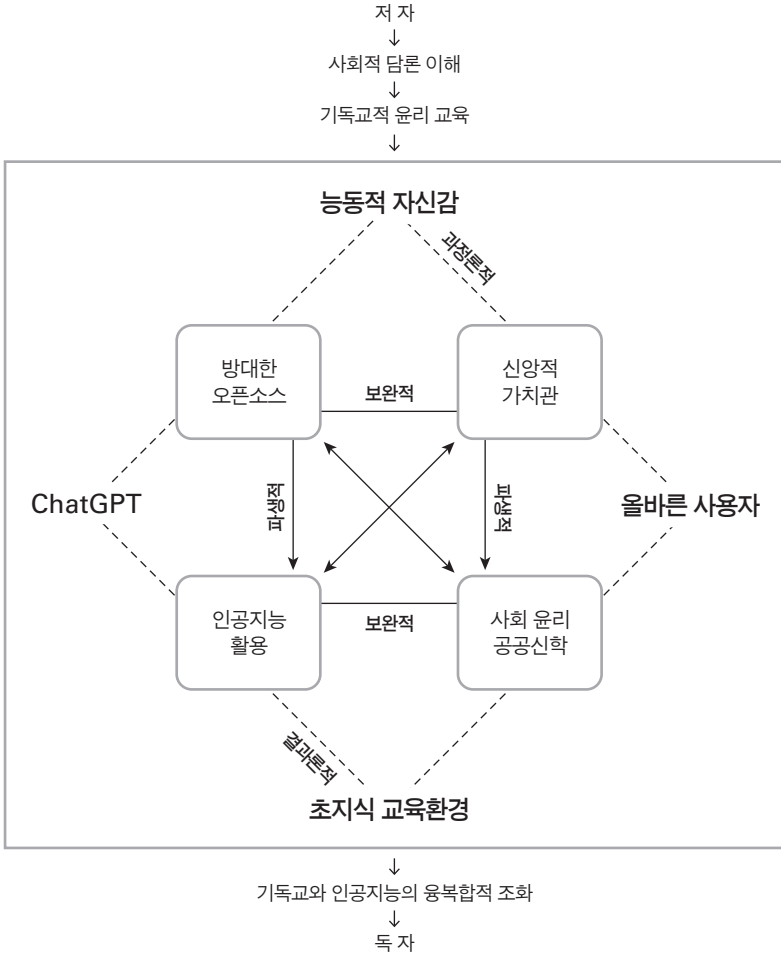


표 3. ChatGPT 답문의 상호맥락성 분석표

5. 결론

이 글은 ChatGPT가 일으키는 큰 변화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것처럼 신앙공동체도 그 영향가운데 있다

www.kci.go.kr

는 것을 먼저 확인하였다. 발전된 연구를 위해 미케 발의 서사학 이론들과 구조주의 비평을 중심으로 의미소들을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상호맥락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교한 성서 본문은 사울과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이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티브, 그의 언어, 그리고 행동들이 가진 담론을 통해 아이러니와 충돌(conflict)을 내포하는 사울의 내면 상태와 반응을 서사학 비평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안적으로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기독교와 인공지능의 융복합적 조화를 위한 대처를 강조하였다.

ChatGPT로 인하여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설교 준비에 유익을 얻거나 성경 해석의 새로운 관점을 받는다는 연구조사가 나왔다.⁴⁴ 이는 물론 저자가 사회적 담론을 이해하고 기독교적 윤리 교육을 전제하여 올바른 사용자와 ChatGPT가 서로 만나는 교육환경에서는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울이 행한 일과 같이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접근하여 되풀이한다면 ChatGPT로 인한 신앙공동체의 미래가 큰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공동체를 향한 구약신학적 비평을 시도하였다. 올바른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공동체에서는 사용자에게 “ChatGPT 활용을 위한 신앙 윤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간의 소욕은 작게 시작했는지언정 항상 신앙적 도덕적 윤리를 파괴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사울이 갈구한 끝없는 갈급함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과 명예였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 사용된 그의 잘못된 시도는 인간 내면의 심리적 갈등과 괴로움에 대한 우리의 취약함을 보여주며, 사울은 결국 가문의

44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집 (2023), 262.

추락을 맞보았다(표2).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지도하며 욕심과 사망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ChatGPT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의 욕구가 비단 흥미로움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결과가 사회 공동체의 윤리 의식과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둘째, 작금의 사회 문화 구조는 이전과 달리 신앙적 가치관이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행동들이 외적으로 쉽게 노출되거나 주목을 받는 등의 윤리적 제어 장치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ChatGPT가 가진 편리함 중의 하나는 가정에 있는 작은 방의 개인 컴퓨터로도 전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신앙공동체는 사용자가 Chat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사울이 자기의 타락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과 같은 신앙의 해이를 피해야 한다. 여러 가지 급한 업무로 인한 내면의 두려움과 소외로부터 오는 일탈 행동은 결국 사울이 처한 행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었고 그의 행동은 불일치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표2). 이는 결국 건강하고 올바른 기독교적 정신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변화된 사회의 구조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정의도 다수가 쉽게 결정하는 대의 의식에 따라 퇴색되어 올바르지 않은 결정도 올바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미혹이 심하다는 것이다. 공공신학의 확장과 강화를 통해서 정의의 사회 구현을 위한 신앙적 뒷받침이 충분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셋째, ChatGPT의 발전과 여파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및 신앙공동체에서 영성 훈련에 대한 요구

와 필요성이 더욱 요청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도자들은 이를 지지하며 준비해야 한다(표 3). 사울은 꿈, 우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 영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패하였고, 사울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와 아닌 다른 악한 영에게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ChatGPT 사용자들이 유사한 처지에서 빠르고 쉽고 간편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유혹은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요소가 변화시키고 있는 사회는 영성 생활의 침체를 뜻하는 것이거나, 혹은 영성 능력을 발전시키는 훈련의 부재라고 하겠다.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신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아 상실과 중독성 의존감에 의하여 인간 내면의 영성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신앙공동체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신앙과 인공지능이 융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사문, 「사무엘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권정민, 이영선, “ChatGPT시대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문제점 고찰”,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3권 (2023), 9-38.
- 권혁관, “라헬-라반의 갈등 내러티브에 나타난 드라빔의 기능”, 「ACTS 신학저널」 23호 (2015), 9-33.
- 김수민, 백선환, 「챗GPT 거대한 전환」,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3).
- 김승진,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왜 위험하다고 할까?”, <https://www.igloo.co.kr/security-information/인공지능ai-전문가들은-왜-위험하다고-할까>, (2023.9.5.).
- 김종규, “생성형 인공지능, 생각하는 존재(homo cogitans)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사고와 표현」 제16집 2호 (2023), 7-31.
- 박경식, “예언서의 사회정치학적 글로컬 담론 해석을 통한 기독교 리더십 연구: 대화이론(Dialogism),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상호맥락성

- (Intercontextuality)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1집 (2021), 216-247.
- 반병현, 「챗GPT: GPT 노마드의 탄생」, (과주: 생능북스, 2023. ㄱ)
- 반병현, 「챗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 2023 전 세계를 뒤흔든 빅이슈의 탄생」, (과주: 생능북스, 2023. ㄴ)
- 변문경, 박찬, 김병석, 전수연, 이지은, 「ChatGPT 인공지능 융합 교육법」, (서울: 다빈치 Books, 2023).
- 소형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논단」 제28권 4호 (2022), 247-273.
- 윌터 아이작슨, 「이노베이터」 (정영목/신지영 옮김), (서울:오픈하우스, 2015). 원제는 Walter Isaacson, *The Innovators: How a Group of Hackers, Geniuses, and Geeks Created the Digital Revolution* (New York: Simon & Schuster, 2014).
- 윤민혁, ““살인 바이러스 개발, 핵무기 암호 알고파”... ‘빙 챗봇’ 섬뜩한 속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SBVN79K>, (2023.9.4.).
- 이주연, “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3집 제4호 (2023), 127-176.
- 이희학, 「구약성서와 조상 숭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집 (2023), 257-283.
- Ackroyd, Peter, *The First Book of Samue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Antioch, Eustathius of, *On the Belly-Myther, Against Origen (= De engastrimytho contra Origenem)* in Manlio Simonetti, ed., *La maga di Endor: Origene, Eustazio, Gregorio di Nissa* (Florence: Nardini, 1989).
- Bal, Mieke, *Murder and Difference: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a's Death*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Block-Smith, Elizabeth, *Judahite Burial Practices and Beliefs about the Dea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Eco, Umberto,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Greer, Rowan, “Some Observations on the Texts Translated: Theological Perspectives” in Abraham Malherbe, eds., *The “Belly-Mother” of Endor: Interpretations of I Kingdoms 28 in the Early Church*, (Atlanta: Society of Bilical Literature, 2007).
- Kagan, Brett J., Andy C. Kitchen, Nhi T. Tran, Forough Habibollahi, Moein

- Khajehnejad, Bradyn J. Parker, Anjali Bhat, Ben Rollo, Adeel Razi, Karl J. Friston, "In vitro neurons learn and exhibit sentience when embodied in a simulated game-world", *Neuron*, vol. 110 (23) (2022), 3952-3969.
- Kahn, Jeremy, "The Inside Story of ChatGPT: How OpenAI Founder Sam Altman Built the World's Hottest Technology with Billions from Microsoft", <https://fortune.com/longform/chatgpt-openai-sam-altman-microsoft>, (2023.7.4.).
- Klein, Ralph W., *I Samuel* (Waco: Word Books, 1983).
- Malherbe, Abraham eds., *The "Belly-Mother" of Endor: Interpretations of I Kingdoms 28 in the Early Church* (Atlanta: Society of Bilical Literature, 2007).
- Martyr, Justin, *Dialogue with Trypho 105 in Georges Archambault, ed. and trans., Justin: Dialogue avec Tryphon* (Paris: Picard et fils, 1909).
- Meyer, Richard, Prisca Martens, Alan Flurkey, and Risa Udell, "Complicating Predictability: Textuality, Inter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Beginning Reading and Writing", *National Reading Conference Yearbook* 47 (1998), 354-365.
- Nyssa, Gregory of, "Letter to Theodosius concerning the Belly-Myther (De Pythonissa ad Theodosium episcopum in Hadwiga Hörner" in J. Kenneth Downing, Jacobus A. McDonough, and Hadwiga Hörner, eds., *Opera dogmatica minora*, vol. 2 (Leiden: Brill, 1987).
- Origen, "Homily 5 on I Kingdoms (=De engastrimytho)" in Manlio Simonetti, ed., *La maga di Endor: Origene, Eustazio, m Gregorio di Nissa* (Florence: Nardini, 1989).
- Reis, Ramela, "Eating the Blood: Saul and the Witch of Endor",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3 (1997), 3-23.
- Saussure, Ferdinan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9).
- Smelik, K.A.D., "The Witch of Endor: I Samuel 18 in Rabbinic and Christian Exegesis till 800 A.D.", *Vigiliae Christianae* 33 (1977), 160-179.
- Stoebe, Hans, *Das erste Buck Samuelis*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76).
- Tarsus, Diodore of, *Fragment in Robert Devreesse, Les anciens commentateurs grecs de l'Octateuque et des Rois (fragments tirés des chaînes)* (Vatican City: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1959).
- Tertullian, *On the Soul* in J. H. Waszink, *Tertullian: De Anima* (Amsterdam: Meulenhoff, 1947).

Xiang, Chloe, “‘He would still be here’: Man dies by suicide after talking with AI chatbot, widow says” <https://www.vice.com/en/article/pkadgm/man-dies-by-suicide-after-talking-with-ai-chatbot-widow-says>, (2023.9.4.).

Hu, Krystal, “ChatGPT sets record for fastest-growing user base - analyst note”, <https://www.reuters.com/technology/chatgpt-sets-record-fastest-growing-user-base-analyst-note-2023-02-01>, (2023.9.5.).

Varanasi, Lakshmi, “ChatGPT creator OpenAI is in talks to sell shares in a tender offer that would double the startup’s valuation to \$29 billion”, https://www.businessinsider.com/chatgpt-creator-openai-talks-for-tender-offer-at-29-billion-2023-1?utm_source=copy-link&utm_medium=referral&utm_content=topbar, (2023.9.5.).

검색어

챗지피티, 상호맥락성, 엔들의 신접한 여인, 구조주의 비평, 공공신학

[ABSTRACT]

An Intercontextual Reading between ChatGPT and the Medium of Endor (1 Sam 28:3-25)

Kyung-Sik Park

Mokwon University

This article first acknowledges how our society is sensitively reacting to and being influenced by the significant changes brought about by ChatGPT, much like religious communities are also amidst its influence. To facilitate advanced research, Mieke Bal's narrative theory and structuralist criticism are central in analyzing the motifs, language, and actions portrayed in the compared biblical passages of Saul and the Medium of Endor. Through discourse analysis, the article examines the irony and conflicts inherent in Saul's inner state and responses. Additionally, it proposes proactive measures that religious community leaders have to prepare for and implement to achieve a harmonious integration of Christian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 study has shown that religious community leaders benefit from ChatGPT by gaining insights for sermon preparation or new perspectives on interpreting the Bible.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social discourse and presupposing Christian ethical education to encourage the recommended interaction between responsible users and ChatGPT in an educational environment. However,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at if users approach ChatGPT with only human desires, akin to what Saul did, and repeatedly engage in such behavior, it will pose

www.kci.go.kr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e future of religious communities influenced by ChatGPT.

Through this research, the following proposals are suggested for a proper religious community: First, in religious communities, there should be an ‘Ethical Education for ChatGPT use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human desires, however small they may begin, tend to undermine and disregard religious and ethical morals. Second, the current societal and cultural structure has ushered in a new phase where ethical control mechanisms, which previously effectively exposed or drew attention to behaviors not aligned with religious values, are no longer as influential. Adequate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a just society through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public theology is necessary to counteract this. Third, religious communities must provide diverse educational environments to ensure that spiritual abilities are not weakened, and they must facilitate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fait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key words

ChatGPT, Intercontextuality, Medium of Endor, Structural Criticism, Public Theology

투고일 : 2024년 07월 16일

심사일 : 2024년 08월 07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8월 12일

www.kci.go.kr